

#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분류 및 예측 요인 탐색

김민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1. 서론

첫 자녀를 출산하면서 여성은 어머니가 되고, 양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가족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Wilkns, 2006), 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도, 때로는 부모 전이기에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양육은 양육을 실천하는 동기와 근거가 되는 양육 지식, 가치 등 인지적 요소와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하는 방식인 실천적 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다(Bornstein, Putnick, & Suwalsky, 2018). 양육의 인지적 요소와 실천적 요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부모 전이기 적응 과정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다차원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와 실천적 요소를 변수 중심적 관점에서 인과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양육 경험 유형을 분류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부조화와 초산모의 부모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적응적 양상을 포착함으로써 부모 전이기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parenting process model)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을 둘러싼 생태 체계의 미시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자녀의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버지와의 관계적 특성이 초산모의 양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녀의 요인으로는 기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으로 산전, 후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체계 내의 아버지 요인으로써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부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분류에 대한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버지 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의 기초조사II(2021~2022년), 생후 1개월 조사(2022년), 생후 4개월 조사(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생후 4개월 조사에 응답한 어머니 2,341명 중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하여 모두 응답한 1,2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여부, 자녀 가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양육 경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산전·후 우울), 아버지 요인(아버지 양육 참여, 부부갈등)을 사용하였다.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 요인들이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

양육 지표를 기준으로 한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은 최종적으로 3개의 잠재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집단 1(35.3%)은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에 충분히 참여했지만, 가장 낮은 자녀 가치와 양육행동 수준을 보였으며,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부적응적 양육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2(8.2%)는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 참여가 적었으며, 정서적 자녀 가치 및 양육행동 수준이 집단 1보다는 높고 집단 3보다는 많았으며, 양육 스트레스 또한 집단 1보다는 적지만 집단 3보다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 집단은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3(56.5%)은 전반적인 양육 지표들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적응적 양육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 2.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 잠재프로파일의 예측요인 검증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에 대

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이 낮을수록, 출산 후 우울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적을수록 부적응적 양육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출산 후 우울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 IV. 논의 및 결론

첫째,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은 부적응적 양육, 준비되지 않은 양육, 적응적 양육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적응적 양육 유형은 양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 안정적으로 부모 전이기에 적응하고 있는 유형이다. 부적응적 양육 유형은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전반적인 양육 지표들이 부적응적 양상을 보여 부모 역할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부모 전이기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으며 부모됨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부모됨의 경험은 기대와 다를 수 있기에, 부모됨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Harwood, McLean, & Durkin, 2007). 준비되지 않은 양육 유형은 정서적 자녀 가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는 보통 수준의 점수를 보임에도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필수적인 지식을 충분하지 않아 부모 전이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다.

둘째, 초산모의 부모 전이기 양육 경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부적응적 양육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산전·후 우울, 자아존중감, 아버지 양육 참여가 있다. 출산 전 우울은 높지 않았으나, 부모 전이기에 경험하는 혼란으로 나타나는 산후 우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는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김영미·송하나, 2015)가 적어, 부모 전이기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출산 후 심리적으로 취약함을 경험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 양육 참여가 적다면 적응 과정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산후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있다.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은 높은 상관관이 있으며, 이에 근거해 해석해 보면 산전 우울은 출산 전 부모됨을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켰을 수 있으며, 출산 후 양육에

서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여 부모됨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적응적 양육 특성을 보이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은 부족한 양육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 양육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이는 출산 후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하여 적응적 양육 집단과 준비되지 않은 양육 집단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전, 후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모됨을 준비하지 못하는 유형을 선별하여 정책적으로 출산 병원, 공공 산후도우미 등을 통한 기초적인 교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적응적 양육 집단의 경우 가장 취약한 양육 경험 양상을 보이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방문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됨의 과정에서 아버지 또한 부모의 역할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